

광주 첫 서양음악회 열린 '100년 건물' 깨어나다

양림동 오웬기념각서 '검사와 여선생' 공연

예술단체 순수, '양림의 소리를 듣다' 첫 프로젝트
우월순 사택 '무성영화'·이장우 가옥선 '국악 공연'



지난 2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웬 기념각에서 열린 번사극 '검사와 여선생' 공연 모습. <공연 단체 순수 제공>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했다. 가끔은 화면에 비로 내리는 흑백 무성영화, 남녀노소 수많은 등장인물을 홀로 연기하는 번사(辯士)의 능청스러움, 분위기를 돋우는 아코디언 연주, 트로트 '여자의 일생' 등을 맛깔스럽게 뽑아내는 막간 가수의 공연까지. 지난 21일 열린 번사극 '검사와 여선생'의 공연 현장은 2013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무엇보다 '검사와 여선생'을 만난 공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오웬기념각. 지난 1914년 건축된 이 건물은 올해로 100년이 됐다. 낡은 의자 등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시간여행'을 제대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어서 건물 안에 처음 들어와 본 사람이 꽤 많았다.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너무나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많은 문화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100년 역사의 근대문화유산이 깨어

났다. 문화공간으로 멋진 변신을 통해서다. 특히 오웬 기념각은 1920년 광주 최초의 서양음악회인 김필레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고 서구식 연극이 공연돼 '광주 문화의 발상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니 이날 공연은 '안성맞춤'이었다.

오웬은 광주에서 최초로 선교활동을 한 유진 벨과 함께 1904년부터 활동한 선교사. 오웬기념각은 1909년 진료봉사를 떠난 장흥에서 사망한 그를 기려 세운 기념관이다. 이곳은 또 1922년 조선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만든 엘리자베스 웨링(한국명 서서경)이 활동하던 공간이기도 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곳에서 광주 최초의 시민장이 치러졌고, 동아일보는 '예수의 제립'이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시도문화기획사업 선정 단체인 '순수'의 프로젝트 '양림의 소리를 듣다' 첫번째 작품이다. 지난 2007년 배우 문근영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순수'는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



1914년 지어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웬 기념각은 양림동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으려 한다. 광주 양림동은 숨겨진 보석같은 공간이다. 선교사 사택 등 근대문화유산과 이야기가 있는 수많은 골목길, 푸른 기운이 항상 넘치는 사직공원까지.

이날 무대에서는 광주의 대표 연극 배우 윤희철씨가 번사로, 강인영씨가 막간 가수로 출연했고, 양림동 토박이 화가 한희원씨와 호남신학대 노영상 총장이 양림동과 오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양림의 소리를 듣다'는 앞으로 또

다른 건물을 계속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근대 문화유산은 유물로 머물지 않고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920년대 건축된 우월순 선교사 사택에서는 '피아노를 곁들인 무성영화 설록 주니어'(9월6일)가 진행되며 1899년에 지어진 이장우 가옥(7월13일, 11월16일)에서는 국악 공연이 열린다. 양림동 미술관(6월14일, 10월 18일)에서는 클래식 공연을 준비 중이다. '순수'는 이번 공연에 지역에서 활

동하는 많은 문화 기획자들을 초청했다. 오웬 기념각을 포함,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을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다.

'순수'의 정현기 대표는 "오웬 기념각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기독교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단발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획자들과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세계적 명소로 키우자

지정 기념행사 표지석 제막



윤성규 환경부장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23일 광주시 동구 율림동 중심사 입구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기념표지석을 제막하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 행사가 23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무등(無等)으로 하나되어!'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주·전남 주요인사와 민간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공연과 무등산과 관련된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국립공원 기념 표지석' 제막 행사도 열렸다. 기념 표지석에는 무등산을 형상화한 50t 가량의 돌에 '국립공원 무등산'을 새겼다. 기념식장 주변에서는 에코백, 한지 거울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무등산의 과거, 자연 보호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무등산 사진전이 열렸다.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자연 경관을 복원하는 등 국립공원 무등산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며 "국민이 먼저 찾는 산이 되도록 다양하고 쾌적한 탐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생태계 보존·지역 발전 적극 지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3일 "무등산 국립공원은 생태계의 보고(寶庫)"라며 "자연환경 보존을 통해 국제명소로 발전을 꾀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에 참석,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바라는 많은 지역 중에 무등산이 25년 만에 지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소중하다"면서 "생태계 보존과 지역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등산 내 군부대 이전과 사유지 매각 등과 관련,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방안은 옳바르지 않다"면서 "지자체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63%), 전남(37%) 등 2

개 시·도,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무등산 사람운동"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존 노력이 20년 이상 이어진 만큼 국립공원 지정 뒤에도 생태계 보호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지질공원, 세계자연공원 같은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보완하는 한편,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8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 2차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전화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광-26%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중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라지고 눈알이 아파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기침 옆구리가 걸리거나 아파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